

대한민국 음성포교 1인자의 세번째 음반

정율 스님, 5년간 미국 음성포교 활동 접고 귀국

‘노래하는 스님’ ‘성악가 스님’으로 유명한 정율 스님(사진)이 5년간의 미국 음성포교를 마치고 3집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3집 앨범 ‘오늘은 좋은 날’은 정율 스님이 불교TV에서 3년간 진행했던 ‘정율 스님과 함께하는 찬불가 교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들을 모아 만든 것이다.

앨범에는 정율 스님이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부른 △무상 △길을 갑니다 △남께로 가오니 △빛으로 돌아오소서 △구름같은 달처럼 등 12곡이 수록됐다.

대한민국 음성포교 1인자로 꼽히는 정율 스님은 노래로 포교를 해온 지 25년째다. 스님은 불교TV찬불가 지도활동을 비롯해 음악회 공연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방송을 봤다.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2004년 대만 국부기념관에서 열린 불국행사와 태국 행사장에서 스님이 부른 찬불가로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국에서 음성포교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은 스님은 스리랑카에서 매달 수행을 하고 있던 2006년 미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다. 전등사 보광 스님이 샌프란시스코

에서 조직된 불국행회 연합창단을 지도해 달라고 요청 한 것.

미국으로 가게 된 인연에 대해 정율 스님은 “한번 스쳐간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한생각을 잘 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스님이 해외 포교를 결심하게 된 것은 수년 전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잊지 못할 기억 때문이다.

정율 스님이 토론토에서 불교음악에 대해 강의를 할 때 찬불가의 환희속에 감동한 불자들이 찬불가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때 스님은 “기회가 오면 외국에 있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낸 한생각으로 스님은 5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월 1~2회 찬불가합창단을 지도하고 뉴욕 불광선원, 뉴저지 원적사를 비롯해 텍사스, 하와이, 애틀란타, 시카고 등지를 순회하며 150여 회의 초청공연과 강의로 눈고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

“미국 포교의 어려움은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한인들은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심이 있어도 바쁜 생활 때문에 법회를 나오기 어렵거든요.”



불모지나 다름없던 미국 포교의 현장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다. 2009년 9월 샌프란시스코 성마이클SF한인성당에서 열린 사랑·자비·희망 콘서트에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전주교 성가대와 불교합창단이 함께 참여한 이 공연에는 한국불자

들뿐 아니라 가톨릭, 개신교인, 미국인, 멕시코인, 중국인 등 인종과 종교를 넘은 1000여 관객들이 모였다.

정율 스님은 이 공연에서 모인 수익금을 지구촌 공생회, 티베트 어린이 돕기, 스리랑카 비구니 스님돕기 등에 지원했다.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한 정율 스님은 “미국은 수행자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곳이다. 생활하기 바빠 사막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앞만 보며 달려왔던 미국은 내게 기도를 주로 하게 만들어주었으며 불자들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곳”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스님은 “이 세상에 억지로 되는 것은 없다. 자연스럽게 몸 흐르는데로, 노래하는 것 자체를 나의 수행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율 스님은 문운사 승가대학을 졸업했고 원광대 사범대학 음악교육학 석사와 동대학원 음악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대만, 중국, 캐나다, 방콕 등지에서 500여 회의 음악회 연주를 가졌고 KBS-TV, 라디오, 불교방송, 원불교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다.

이나는 기자

이은정 기자의 뽀뽀(Fun Fun)한 레시피

콩국수

우리집은 여름철만 되면 콩국수를 꼭 만들어 먹었다. 여름철 별미기도 하지만 콩국수는 아버지 생신 상에 오르는 단골 메뉴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생신은 음력으로 항상 7월에 돌아왔다. 엄마는 아버지 생신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 항상 콩국수를 대접했다.

매년 그렇게 하시는 게 귀찮을 법도 한데, 삶은 내색을 하신 적이 없었다. 아빠는 은근히 ‘엄마표 콩국수’를 자랑스러워했다. 엄마의 콩국수를 맛 본 분들은, 어김없이 칭찬일색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올해는 아빠 생신이 언제 돌아오냐며, 먼저 물어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

어릴 때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콩물의 맛을 잘 몰라, 엄마가

만들어 주는 콩국수를 잘 먹지 않았다. 엄마의 콩국수 맛을 제대로 알게 된 건 20살이 넘어서 부터였다. 사람들과 섞여 이곳저곳의 식당에서 콩국수를 맛보니, 엄마가 만들어 준 콩국수가 ‘진짜 콩국수’라는 걸 새삼 알았다.

사실 콩국수 만드는 일은 여간

해선 쉽지 않은 일이다. 밀가루 반죽을 해 면을 만들어야 되고, 콩은 불리고 삶고 갈아 콩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콩의 고소한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생각해보니 엄마입장에선 정말 귀찮은 일이었을 텐데, 여름이 다가오면 얼음을 동동 띄운 ‘엄마표 콩국수’가 생각나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여름도 잘 먹고, 잘 지냈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알고가기 콩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비만인 사람들에게 좋다. 특히 콩의 이소플라본은 성인병예방과 노화방지에 탁월하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콩은 고단백질 식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콩은 껍질이 얇고 깨끗하며, 색이 노랗고 윤기가 많이 나는 것이 좋다. 보통 말린콩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불린 뒤 요리한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콩250g, 밀가루 2컵, 콩가루 4분의1컵, 들깨 3큰술

음식 만들기

- ①콩은 물에 담근 후, 6~7시간 불린다.
- ②밀가루와 콩가루를 섞어 반죽한 뒤, 밀대로 밀어 적당한 굵기로 썰어준다.
- ③불린 콩은 냄비에 넣어 7~10분 정도 다시 삶아 낸다.
- ④삶은 콩과 들깨가루를 섞어, 미서기에 넣고 갈아준다.
- ⑤갈아낸 콩은 체에 한번 걸러낸다.
- ⑥썰어낸 면발들은 끓는 물에 삶아 낸 뒤, 콩물을 부어 준다.
- ⑦콩물은 입맛에 따라 소금으로 간한다.

목인박물관, 여름맛이 ‘비나이다, 비나이다’展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13억 4000만)가 살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면적이 4번째로 큰 나라다. 다양한 민족과 인구가 살고 있으며 그만큼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종류도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길 기원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의 안위를 간절하게 빌었다. 때로는 아이가 생기길 기도하며 높은 관직에 올라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이런 간절한 믿음들은 중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늘 함께 했다.

나무로 조각한 민속조각들을 모아 전시하는 목인(木人)박물관에서 여름맛이 특별한 ‘비나이다 비나이다展’을 연다.

중국에서 부를 가져다주는 재물신, 아이를 보내주는 송자관음, 시험 합격 기원과 출세를 기원하는 문신,

가족들을 지켜주는 조상신 등 다양한 중국 목인을 만나 볼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우리에게 친근한 포대화상 조각을 볼 수 있다. 항상 잡동사니들을 쑤셔 넣은 포대를 지팡이로 메고 시내를 배회한 포대화상은 미륵의 화신으로 근세 중국에서는 재신(財神)으로서 일반인들의 신앙을 모으고 있다.

연방은 연꽃의 열매로 씨앗이 많이 들어 있는데, 생식이 번영하는 것과 더불어 풍작 기원을 상징한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호신조각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녔다.

박물관에서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북을 불러 오는 다양한 목관, 부적 짚기와 이번 전시의 마스코트인 포대화상으로 책갈피 만들기를 실시한다. 전시기간은 8월 31일까지. (02)722-5066 이나는 기자



일반에 최초 공개되는 외규장각 의궤

9월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여나)은 7월 19일~9월 18일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에서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개최해 외규장각 의궤를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풍정도감의궤》 등 71점의 외규장각 의궤를 중심으로 전시되며 의궤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강화부 궁전도》 등 관련 유물을 함께 배치해 총 165점의 유물이 선보인다.

조선왕조 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이미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다. 조선왕조 내내 의궤는 꾸준히 제작되어 예(禮)를 중시



효정세자책례도감의궤(1725)하는 유교문화권의 특징을 잘 보여 줄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통치 철학 및 운영체계를 알게 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기록물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그동안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외규장각 의궤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알리고 무엇보다 의궤 귀환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 말씀 - 밖에서 찾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지혜로,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작은 마음에서 큰마음으로 바뀌어 집니다. 또한 마음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성인도 되고 범부도 되며 그리고 행복하기도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독송하면서 막혔던 부분을 쉽게 풀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라도 펴서 읽으면 명상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행복은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이치를자세히 밝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불교공부가 재밌어지며 아마도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괴로움이 진실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변화에 상관없이 존재해야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만 해도 고통은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고통과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의 감정은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상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본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불조정맥 중,영,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20년 오랜음씨 탕화불상에숙원 **갈상**

8각좌대 **착보부처님** 전문염가도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착보도불도배**

있는곳: 경북 경주시 서건동 한빛길 28번 14호
 온라인리미: 010-5595-8533
 알하는곳: 054) 773-8533